담임목사 리더십
제2강. 교회관과 목회철학에 의한 리더십

하나님은 지도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반드시 훈련하신다.
지도자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한다.
리더십은 그가 자란 환경과 정신과 신앙관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러므로 목사의 리더십도 그의 자란 환경과 교육과 교회관과 목회철학과 그가 섬기는 교회적인 상황에 의하여 형성된다.

1. 교회관과 목회철학

(1) 어머니로서의 교회

①성경적인 교회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백성으로의 교회,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
몸으로서의 교회

②어머니로서의 교회관?
사42:14, 46:4, 66:13, 시131:2, 마23:37,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한 성경적인 예?
창1:26~28, 호2:19~20, 엡5:21,

③교회를 어머니로 보았던 신학자들
존 칼빈 =
에드먼드 클라우니=
안셀롬=

(2) 모성적인 목회로서의 목회철학

①지아비이신 하나님께 목숨 바쳐 섬기는 열녀 목회

②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양육 목회

③가정의 살림을 잘하는 보살핌의 목회

④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한 비전 목회

2. 모성적인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의 원리

진정한 지도력은 권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
오늘 한국 교회들의 문제는 목회자의 지도력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과연 오늘의 교회에 목회자의 권위가 있는가? 라고 묻고 싶다.
오늘의 유약한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의 목회자들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아닌 교인들의 눈치만 보고
사람을 의식한 체면목회를 하고 있다.
오늘의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고치기 힘든 왕자병과 공주병에 걸려 있다.
이는 전적인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모성적인 목회라 하여 모든 것을 참기만 하고 희생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상을 복음화하자는데 있다.
자녀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
어머니 같은 목회자가 되어 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1) 하나님에 대한 절대 헌신을 다하는 목회자

여성의 권위는 한 지아비를 한 평생 일편단심 일구월심
헌신적으로 섬길 때 생기는 것처럼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철저한 헌신에서 온다.
마22:37~38절=
행20:24=
바울의 큰 영향력은 주님을 향한 그의 철저한 헌신에서 왔다.
목회자의 생명과 권위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에 있다.

(2) 생명을 출산하는 생명 목회자

한국의 전통적인 가문에서 여성의 권위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야 한 가족으로 대접을 받았다.
창1: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그들에게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에서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축복한 내용도 “너는 많은 민족의 씨가 되라”고 하였다.
마28:19~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있다.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은 생명을 출산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야 한다.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한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죄인이 된다.

(3)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하는 양육 목회자

신6:4~15(신11:18~25)=
잠22:6=
마28:19~20=
고전4:15=
딤전4:6~10=
부모는 자녀를 낳았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 자녀가 잘못되면 어미는 할 말이 없다.
어미는 잘못된 자식 때문에 평생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살게 된다.
자녀를 잘 양육하면 성문에서도 멸시를 받지 않는다.(시127:6)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신6:10~12)

(4) 교회를 잘 돌보는 돌봄의 목회자

여성으로서의 또 하나의 사명은 가정의 살림을 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가정의 평안과 평화를 위하여,
가족들의 넉넉한 경제생활을 위하여 지혜와 성실함이 있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
잠31:10~31=여성으로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27가지가 된다.
목회자는 전문 직업이다. 한가지를 하여도 우월하고 탁월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사전의 준비성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결핍되면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기 어렵다.

(5) 섬기며 희생하는 목회자

자녀에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진정한 권위는 희생과 섬김에 있다.
막10:45=
행20:17~21=
엡4:12=
적어도 목회자라면 바울사도처럼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담대히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교사가 교직에서 은퇴하면서
“학생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끝내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교단을 떠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고 하면서
눈물로 교단을 떠난 교사가 있다.

(6) 자기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성실한 목회자

딤후3:14~15=
딤전4:11~16=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도자가 자기 발전을 위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된다.
지도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와의 피나는 싸움이다. (고전9:24~27)

(7) 목회철학이 분명하고 안목이 있는 비전의 목회자

행2:17=
지도자는 소신이 있으며 분명한 목표와 철학이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며 꾸준히 하는 성실성이 있다.
지도자의 권위는 일을 많이 함으로서가 아닌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삶에 의미와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환상과 꿈이 있다.

(8)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인내가 있는 목회자

선생과 부모가 다른 점은 선생은 가르치다가 안되면 포기한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은 부모의 마음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 십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는 고뇌가 있다.
천년을 하루 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살전1:3=
요10:11~15=
눅15:11~32=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9) 영적인 권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

벧전2:9~10=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는다.
갈1:1= 내가 사도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체감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이 지켜야 할 권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10)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목회자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와 함께, 모세는 아론과 여호수아와 함께,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룻은 나오미와 함께,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바울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하였다.
21세기의 목회는 전문 평신도를 세워 함께 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11) 사심이 없고 진실하며 뜨거운 열정이 있는 목회자

마음을 비우고 사심이 없는 지도자는 신뢰를 받는다.
주님처럼 그리고 제자의 도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다.
(마10:10, 데이빗 왓슨의 제자도)
뜨거운 불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다.
그냥 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르며,
열심히 하는 것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은 다르다.
렘20:9=
행1:8=

지도력은 영향력이라고 한다.
어머니만큼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없다.
그 영향력은 철저한 희생에서 나온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무의 힘은 가지나 수많은 잎에 있지 않고 열매에 있다.
열매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흘려 가꾸는 대가이다.(시126:5, 갈6:7~10)

21세기의 목회는 권위적인 부성적인 목회보다는
따뜻한 모성적인 가슴을 가지고 성도를 품고 돌보는 부드러운 목회자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좋다는 너그러움보다는
남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사도적인 마음도 필요하다.
바울사도는 정치가는 아니었다. 그는 전형적인 사도였을 뿐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자신이 죽는 것도 불사한 열정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적인 열정이 있는 지도자였다.